

김건모 광주 콘서트 ... 한여름밤의 추억 만든다



2009 김건모 전국 투어 콘서트가 30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29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공연에는 모두 3천여명의 관객들이 참여, 김건모에게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9~30일 이틀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09 김건모 전국 콘서트-Soul gloove'는 열광의 현장이었다. 객석을 가득 메운 3천여명의 관객들은 공연이 시작되자 마자 의자에서 일어나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은 열광

광주문예회관 3천여 관객 열광

색색의 아광봉을 흔들며 김건모의 노래 한국한곡에 열광했다. 3시간에 이르는 공연 동안 김건모는 '핑계', '잘못된 만남', '잠 못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등 40여곡의 히트곡을 열창했으며 피아노 연주와 유쾌한 입담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 이번 공연에는 인기 가수 박미경이 찬조 출연, '이유없이 않은 이유' 등 히트곡을 불러 무대를 빛냈으며 10명의 백댄서와 세션 연주자들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高入 전형도 복잡하네

전·후기 입시 시기·방법 5개 유형 분산 '혼란'

광주 올 1만6,427명 모집안 확정

2010학년도부터 다양하고 복잡해진 학교 유형과 전형 방식 때문에 고교 입시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고입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전기와 후기 모집이 명확히 구분된 점이다. 전기에는 특목고와 자율·자립형 사립고·전문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중 한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탈락하더라도 후기 일반계고에 지원하면 된다. 광주는 외국어고 없는 만큼 타지역 외고 지원도 가능하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고등학교입학 전형위원회에서 확정된 2010학년도 고입 전형을 살펴봤다. 올해 광주지역 고교의 모집인원은 모두 1만 6천 427명이다.

◇전기에 한 곳만 지원 가능=오는 10월 12일 광주예고교를 시작으로 같은달 16일 광주정보고, 22일 광주과학교·송원고, 11월 9일 전남공고, 12월 14일 광주체육고·동명고·광주여상고·전남여상고·전문계고 등이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주의점은 내신 성적 산출기준일이다. 학교에 따라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나 2학기 중간고사 성적까지 반영된다. 이들 학교는

모두 전기 모집으로 1개 학교만을 지원할 수 있다. 전기 합격자는 후기 일반계고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는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지원에도 적용된다. ◇일반계고 12월 23일 원서 접수=일반계고는 후기 모집이며, 접수기간은 12월 23일부터 28일, 내신성적 산출 기준일은 12월 9일까지다. 학교 배정은 선(先) 복수지원 후(後)추첨 방식이며, 학교별 정원의 40%는 응시자가 지명한 1순위 지원학교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고, 60%는 지리정보추첨으로 무작위 배정한다. 지리정보추첨 시 거주지역 인근 5개 고교를 순위 없이 무작위로 추첨한다. 단 검정고시 합격자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는 현 광주 주소를 기준으로 최근거리 중학교를 출신학교로 간주해 추첨 배정한다. 또한 2010학년도 고입 배정에 한해 수완지구 거주 학생과 2010년 3월 1일까지 수완지구 입주 예정인 학생에 대해서는 수완중학교에서 배정 가능한 고교로 배정된다. ◇외곽 거주 학생 거리 배정 확대=외곽 거주학생의 거리 배정도

확대됐다. 올해부터 나주 남평중학교 졸업예정자는 광주지역 고교로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은 근거리인 인성고와 송원고 등에 진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남에서 광주지역 고교로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는 담양고서중과 함재중, 장성남중을 포함해 4개교로 늘었다. 이 밖에 ▲동신중, 동신여중 졸업생 중 충효분교 졸업생이면서 충효분교 학군 거주 학생이나 타 초등학교 졸업생이면서 청옥중 거주하는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북구 운동동, 청풍동, 충효동 등) 거주 학생 ▲송정중, 정광중, 송광중, 평동중 졸업생 중 동곡초교 출신이면서 동곡동 거주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광산구 유계동, 하산동 등) 거주 학생은 선지원 추첨 배정 1·2지망 중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고교(중학교에서 배정가능 고교)로 우선 배정된다. ◇지체부자유학생 전형 편의 강화=지체부자유학생은 별도의 과정과 과목 없이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3차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전남대학교병원 3개 과 이상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판정을 거쳐야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0학년도 광주지역 고교 입학전형 주요일정

구분	내신성적산출기준일	원서접수	정원일	합격자발표	
전기	과학교	졸업예정자 3학년2학기 중간고사 조기졸업자 2학년1학기	09. 10. 22 09. 10. 26	2차전형 09. 11. 01 3차전형 09. 11. 06	09. 11. 10
	특수목적 고등학교	체육고	09. 12. 09 09. 12. 17	09. 12. 18	09. 12. 21
	예술고	졸업예정자 3학년1학기 졸업자 3학년2학기	09. 10. 12~ 09. 10. 19	특별전형 09. 10. 20 일반전형 09. 10. 29~10. 30	특별전형 09. 10. 21 일반전형 09. 11. 04
자율형 사립고	송원고	3학년2학기 중간고사	09. 10. 22~ 09. 10. 26		09. 11. 10
마이스터 고등학교	광주정보고	3학년1학기	09. 10. 16~ 09. 10. 20	09. 10. 29	09. 11. 04
특성화 고등학교	동명고	09. 12. 09	09. 12. 14~ 09. 12. 17	09. 12. 18	09. 12. 21
	전남공고	3학년2학기 중간고사	09. 11. 09~ 09. 11. 13	09. 11. 16	09. 11. 30
	광주여상고	09. 12. 09	09. 12. 14~ 09. 12. 17	09. 12. 18	09. 12. 21
	전남여상고	09. 12. 09	09. 12. 14~ 09. 12. 17	09. 12. 18	09. 12. 21
	전문계고	09. 12. 09	09. 12. 14~ 09. 12. 17	09. 12. 18	09. 12. 21
후기	평준화 지역고	09. 12. 09	09. 12. 23~ 09. 12. 28		09. 12. 30

*전형일에는 실기고사, 면접, 신체검사 등 교육감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선발 전형이 진행됨.

'먹물총' 쏠볼 시위 주도

前 한총련 의장 선고유예

광주지법 형사 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30일 쏠볼집회를 주도하면서 참가자들이 먹물을 물총에 담아 경찰 정압이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3차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전남대학교병원 3개 과 이상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판정을 거쳐야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만 다른 폭력 시위와 비교해 죄질이 가볍고, 폭행 행사의 정도가 처벌의 경계에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장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6월 광주시 북구 충효동 한나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쏠볼집회와 거리행진을 주도하다가 초등학생 등 집회 참가자 10여 명에게 집단 경찰관들을 향해 먹물 총을 쏘도록 지시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먹물 총 시위대를 지휘한 점은 인정되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4분
해질 19시 01분

달돋이 16시 31분
달질 01시 38분

물러가는 8월

흐리고 비가 온 뒤 점차 개겠다.

도시	기온	날씨
광주	비온뒤 19/25℃	구름
목포	비온뒤 19/24℃	구름
여수	비온뒤 20/24℃	구름
완도	비온뒤 20/24℃	구름
구례	비온뒤 18/25℃	구름
해남	비온뒤 20/24℃	구름
장흥	비온뒤 20/24℃	구름
고흥	비온뒤 20/25℃	구름
순천	비온뒤 19/25℃	구름
영광	비온뒤 18/25℃	구름
진도	비온뒤 20/24℃	구름
전주	비온뒤 18/27℃	구름
남원	비온뒤 17/24℃	구름
옥산도	비온뒤 19/23℃	구름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남원로 학사동 603-1114 / 대학원 605-1115

광주 아시아인권학교 개최

5·18재단, 9월 19일까지
인니 등 14개국 20명 참석

5·18 기념재단이 '제6회 광주 아시아인권학교'를 개최한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3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일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6회 광주 아시아 인권학교'를 연다. 민주·인권·평화 등 인권운동가들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인도네시아·인도·네팔·스리랑카·필리핀·캄보디아 등 14개국 20명이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초급실무자·중급실무자·지도자 과정으로 나누어 과정별 맞춤형 학습을 받게 된다. 강의는 조진태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을 포함한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정영선 전북대 교수 등이 맡게 된다. 강의 내용은 '아시아 시민사회와 한국'을 비롯한 '5·18과 지역 문화운동' '아시아 주거복지 운동과 인권' '아시아의 식민지 지배와 서구의 지배전략' 등이다. 재단측은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31일 오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5층에서 입학식을 갖고, 다음달 1일에는 참가자들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헌화할 예정이다. 5·18 기념재단 김찬호 교류지원팀장은 "광주 아시아인권학교가 아시아의 시민사회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모범적인 프로그램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 인권운동가들의 배움터인 '광주 아시아인권학교'는 지난 2004년 문을 연 뒤 지난해까지 20개국 107명의 청년들이 다녀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조이 여행사

234-3222

제주 2박3일 패키지 (선박)

독포출발 (고급편선/일반호텔) ₩98,000 ▶ 출발일: 8/13, 8/16, 8/22

키잡리아로 떠나는 류승 온천여행

4일 ₩329,000~

▶ **독포출발** (고급편선/일반호텔) ₩98,000 ▶ 출발일: 8/13, 8/16, 8/22

▶ **제주 2박3일 패키지 (선박)**

▶ **협찬: 씨월드고속해리, 아프렌드, 선녀와나무꾼**

▶ **키잡리아로 떠나는 류승 온천여행**

4일 ₩329,000~

▶ **대이고속해리로 떠나는 대미도여행**

₩349,000~ 3일